

서울 우면동  
함께크는  
공동육아어린이집



아이와 어른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터전

**글 강혜진** 연필나무, 5세 강채원, 3세 강시원의 엄마.  
지난해 채원이의 터전 등원으로 조합원 생활을 시작했다.  
**사진** 함께크는어린이집 조합원  
**교사회** 금봉어, 다래, 산토끼, 곰지, 꽃바구니, 초코



20년의 긴 역사를 자랑하는

강남서초지역의 유일한 공동육아어린이집

서울 서초구 우면동 함깨크는어린이집(이하 ‘함크’)은 올해로 개원 20주년을 맞았다. 모든 공동육아어린이집이 그렇듯 함크의 시작도 쉽지만은 않았다. 모래놀이판과 텃밭이 자리한 마당과 함께 현재 터전으로 쓰고 있는 2층 단독주택건물을 터전 초창기에는 1층은 어린이집으로, 2층은 당시 조합원 살림집으로 쓰기도 했으니 말이다. 물론 현재 조합원들은 선배 조합원들의 품과 노력으로 많은 것들을 편히 누리며 안정된 운영시스템 속에서 조합 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함크는 오후 5시부터 하원이 가능하고 조합원의 가정에도 마실을 보낼 수 있기에 워킹맘도 마음 편히 보낼 수 있다. 옆집은 물론 마을에 누가 사는 지도 모르고 사는 일이 대부분인 요즘, 우면동 곳곳에 살고 있는 조합원들의 따뜻한 눈길은 ‘함크 CCTV’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아이들은 안전한 정서 속에서 마을 생활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5년 이상 장기근속 중인 베테랑 교사들이 함께 해 교육 환경도 안정적인 편이다.

## ‘우리’ 아이의 부모가 되어보는 색다른 경험과 감동

### 공동체에서 더욱 성장하는 부모

아마 공동육아를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아마들이 그렇듯이 함크에 오면 내 아이만 바라보던 시각이 ‘우리 아이’로 넓어진다. 터전에 와서 맞은 첫 새해에 내 아이뿐만 아니라 터전 아이들에게 처음 세배를 받았을 때의 감동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내 아이, 네 아이로의 구분이 사라지고 ‘우리의 아이’로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터전에서 우리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 아이가 커가는 시간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의 성장도 가까이에서 함께 할 수 있기에 특별하다. 육아로 고민할 때는 교사와 아마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해결책을 찾아가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한다. 내 아이만 바라보던 이기적이고 편협한 시각을 조금씩 걷어내게 된다.

한편 아마들의 소모임도 활발하다. ‘함크유랑단’은 매달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책을 선정해 동화책 속 주인공을 인형으로 직접 만들어 테이블인형극을 한다. 장애인 인형, 다국적 인형 등 터전의 다양한 놀이인형을 함께 만들며 그 필요성이나 활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한다.





‘환경모임’에서는 아이들이 매일 마시는 우유 팩을 한데 모아 친환경휴지로 교환해 터전 살림에 보태기도 하고 친환경세제를 함께 만들어 나누기도 한다. 매년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에 대해 공부하고 대응책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 단순히 어린이집에 내 아이의 보육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환경도 조금이나마 개선해보고자 좀 더 넓고 깊게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공동육아 참여에 다소 무심할 수 있는 아빠들은 자전거라는 취미활동을 통해 ‘함타’라는 모임을 가지며 아이와 터전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조합원 대상 필참교육을 지역사회에 공개해 터전, 나아가 지역공동체에도 이러한 생각과 가치를 공유하고 더 크게 확산한다.





### 우리 터전의 큰 자랑거리 '먹거리 소위'

함크의 장점이 많지만 그래도 가장 큰 자랑거리를 꼽으라면 '먹거리 소위'가 아닐까한다. 매년 때가 되면 매실은 물론 열무김치, 김장김치 등을 아마들은 물론 아이들도 함께 담근다. 터전에 건강한 식재료가 부족하면 직접 구매하기도 하고 자라는 환경이 확인된 산지에서 제철 공동구매를 하며 각 가정에서도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무엇보다 건강한 먹거리에 힘을 보태주는 것은 조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음식솜씨 좋은 영양교사 초코다. 아이들은 매일 집에 와 오늘은 어떤 간식과 반찬이 맛있었고 나물은 어떻게 먹어야하는지 씬 없이 조잘거린다. 그리고 터전 텃밭에 직접 채소를 키우고 그 수확물을 나눈다. 특히 올해는 수확물을 아마들에게 판매해 그 수익금으로 삼복 잔치를 열기도 했다. 이렇게 건강한 먹거리와 가까이 해온 터전 아이들이 초등학교가 돼서도 인스턴트 식품만 먹지 않고 여러 종류의 나물과 다양한 반찬을 잘 먹는 편이라고 하니 감사한 일이다.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며 놀이의주인공이 되며 성장하는 아이들

아이들은 자연과 친숙해지며 주춤거리던 걸음걸이를 뒤로 한 채 다람쥐(?)만큼이나 빨리 뒷산을 오르내리고 까매진다. 봄·가을에는 마당 앞 모래놀이터로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고 여름이면 마당에서 물놀이터로 ‘까르르’ 신나게 물장구를 친다. 겨울이 되면 양재시민공원을 쏘다니며 양봉이 시뻘게져도 눈썰매를 타며 바지는 흠뻑 젖는다.

더워도 더운 줄 모르고, 추워도 추운 줄 모르고 누구보다 신나고 다양하게 놀잇감을 찾고,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고 놀이의 주인공이 되며 성장하는 우면동 날다람쥐들. 음률 놀이를 하면서는 어느새 멋진 시인이자 훌륭한 무용수가 되기도 한다. 씩씩거리며 싸우다가도 어느새 미안해, 사과하며 서로에게 다가가고 언니 오빠 누나 형들이 입다 작아진 옷, 어려서 보던 책과 갖고 놀던 놀잇감들을 동생에게 물려주며 나눔을 배우고 서로 간에 정을 쌓아간다.





**함께크는어린이집사회적협동조합**

hamkke.gongdong.or.kr

T 02)3462-7599.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11안길 12

터전이기에 가능한 아빠의 성장 & 엄마의 힐링 시간

일 년에 한두 번은 아빠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아빠, 어디가?’와 엄마들끼리 함께 여행가는 ‘엄마만 어디가?’, 연차를 쓰는 교사를 대신한 평일 아마 활동, 터전 청소 등을 통해 아빠들은 아이들과 추억도 쌓으며 육아에 더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엄마들은 지친 육아에서 잠시 해방되는 힐링 타임을 갖는다. 이것들이 과연 혼자 아이를 키운다면 가능한 일일까?

공동육아어린이집의 처음 선택은 대부분 다른 곳에서 배울 수 없는 공동체와 심심한 놀이, 안정된 정서를 경험할 우리 아이들 때문에 이루어진다. 하지만 동시에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내 아이의 성장 이상으로 어른인 우리들이 양육자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조금씩 성장해나간다는 것이 아닐까 싶다. ☺

